



바람이 전하는 노래

여 수 시 립 국 악 단 제 3 3 회 정 기 공 연

2017. 5. 19. **금** PM 07:30

GS칼텍스 **예울마루** 대극장



예술감독/ 이경섭





해금/ 강은일



여수청소년통연회단 굴렁쇠놀이패

Ticket

전석 5,000원

주최  여수시 주관  여수시립국악단 (www.yeosusymphony.or.kr)

문의 : 여수시문화예술과 061)659-4739 여수시립국악단 061)651-0001

예매처 : 여수시립국악단 061)651-0001 (사)한국예총 여수지회 061)642-7466 청음악기사 061)681-6513 비엔나레코드 061)681-4342

비릿함이 전하는 맛

여수시립국악단의 감미로운 선율
화려한 무용 / 신명나는 연희 / 흥겨운 소리

Remember

1부

1. 관현악_ Arirang Rhapsody / 이지수 작곡·안승철 편곡

'아리랑 랩소디'는 진도아리랑을 모티브로 편곡, 재해석된 환상곡풍의 기악곡이다. 서정적이며 경쾌한 멜로디에 웅장하고 드라마틱한 전개가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이들의 귀를 휘어잡을 것이다.

2. 판굿과 함께하는 소나기

판굿은 갖가지 놀이를 순서대로 짜서 솜씨를 보여주기 위해 벌이는 음악과 놀이의 종합예술이다. 놀이판의 흥을 돋우고 연주자와 관객 모두가 하나 되는 순간을 기대한다.

3. 관현악_ 파라다이스 / 이경섭 작곡

호기심 많은 유년시절... 내가 꿈꾸던 동화속 같은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리라 믿었다.
사실...아직까지도 그 꿈을 버리고 싶지 않을런지 모른다
지금 내가 사는 세상이...그 꿈속과 닮아가길 기대하지 않는가?
꿈이 현실이 되는 세상...
이젠 내 아이와 동화속을 거닐며 그 꿈을 나누어주고 싶다.

4. 해금 협주곡_ 추상 / 이경섭 작곡·강은일 해금

어린 시절....,
한 없이 푸르고 높게만 보이던, 늘 깨끗하게만 보였던 그 가을 하늘이....,
힘들고 바쁜 생활이 반복되어 지면서
푸르고 여유로운 가을 하늘을 얼마나 쳐다볼 수 있었던지.....,
여유로운 마음.
어릴적 한가로웠던 가을 기억들을 떠올린다.

동백 바람에 날리어

2부

5. 좌수군의 복소리

전라좌수영의 앞마당에는 흥의로 가득 찬 군사들의 땀내음과 우렁찬 함성소리로 가득하다.
'내가 죽지 않는 동안에는 감히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취타대의 소리는 수군들의 승리의 의지와 함께 하늘높이 울려 퍼진다.

6. 동백 바람에 날리어

여수의 바다는 바람을 타고 우리 코 끝에 닿아있다. 비릿하고도 청량한 그 내음은 수다쟁이처럼 재잘거리기도 하다가 이내 새색시처럼 수줍다 한다.
바닷바람에 실려 날리던 꽃잎의 살랑거림은 눈 속에 그 모습을 감추고도 붉게 피어난다.
이윽고 가쁜 숨을 내신 해녀들의 물길에 맞대는 가득 찼고 일찍부터 헤엄쳐 놀던 아이들은 바다와 벗이 된다. 바람과 꽃잎은 그렇게 바닷사람을 닮아 있었다.

7. 必生即死 必死即生 (필생즉사 필사즉생)

죽음조차 두려워 않던 좌수영민들의 강인함은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 아닌 내 땅과 민족을 지켜내려는 고집스러움의 연속이다. 거센 바람으로 꽃잎을 떨구고도 결국 또 피워내고야 만다는 동백! 흡사 그것과도 닮은꼴인 민중들의 삶은 고달픈 나날의 연속이었으며 시누대를 꺾고 그 위기를 이겨낸다.
아버지는 연을 만들어 위기를 알렸고 어머니는 치맛자락을 휘날려 내 사람을 지켜내었으며 할아버지의 지혜가 합쳐져 거센파도의 소용돌이에 적들의 함정을 만들어 내었다.
이렇듯 이순신과 전라좌수영민들의 함성은 살아있음을 노래한다.

8. 민중의 함성

저 바다 저 멀리 경상도 바다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왜적의 함성 /
군선과 병력은 일천하지만 조국의 바다 지키려 노를 젓는다. /
백성이 원하면 하늘도 따른다. 성진하라 방포하라 전라좌수군 /
백성의 통곡이 가득찬 조선에 최전선의 전위군은 전라좌수군 /
우리는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 조국을 지키고 싶은 자나를 따라라 /
백성이 원하면 하늘도 따른다. 성진하라 방포하라 전라좌수군
우리는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니 우리의 함성이 불꽃같은 동백꽃이 되어 바람에 날린다...



여수시립국악단

여수시립국악단은 2000년 7월 1일, 여수시민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해 창단되었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여수시의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국가 문화브랜드를 탄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여수지방의 전통예술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발전시킨다는 사명감으로 21세기에 맞는 전통예술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수시립국악단은 최중선 부시장을 단장으로 국악 관현악, 창악, 무용, 타악 등 네가지 전문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歌, 舞, 樂이 일체가 되는 전통예술을 추구하고 있다. 이경섭 지휘자를 포함한 단원 모두는 연중 2회의 정기연주회를 비롯한 타 지역 및 해외 공연 등 연중 100여회의 공연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